

사랑의목장

WEEKLY LOVE COLUMN

“한국인의 정서와 신앙”



한국인의 뿌리 깊은 정서를 꼽으라면 '흥(興)',
'한(恨)', '정(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문화적 표현을 넘어,
한국인의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한국인의 신앙은 이러한 정서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생명의 방식으로
승화시킵니다.



1. 흥(興) - 춤추게 하는 힘
'흥'은 한국인을 춤추게 하는 힘이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웃고, 노래하며, 어깨를
들척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흥'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억눌린
현실에 대한 저항이자 삶을 향한 강인한 의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한국인의
고유한 생존 방식이자 축제의 영성입니다.



한국인의 예배에는 '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손뼉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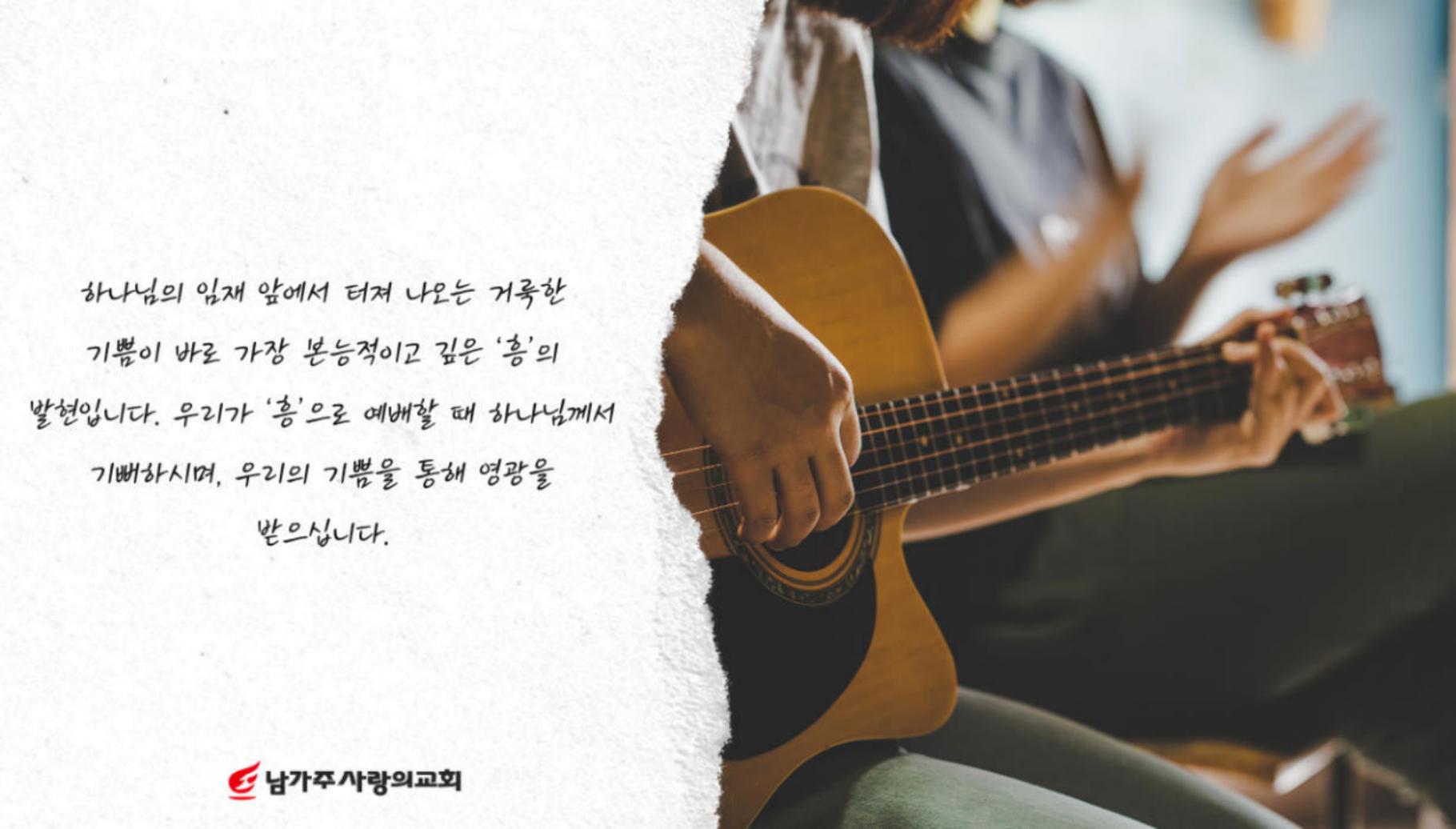
경배할 때, '흥'의 정서가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마음을 적실 때 그 감격이 움직임으로

흘러나오고, 눈물의 기도와 찬양, 춤과 노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 나오는 거룩한
기쁨이 바로 가장 본능적이고 깊은 '흥'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흥'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2. 한(恨) - 아픔 속에 깃든 소망

'한'은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집단적
아픔입니다. 분단의 슬픔, 억울한 죽음, 이산의
그리움, 말 못 할 억눌림의 고통이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한국인의 '한'은 단순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이 아픔이 풀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이며, 정의와 회복을 향한 끈질긴 염원입니다.



우리의 '한'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시고
결국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을 깊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경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한'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상처 속에서도 새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3. 정(情) - 사랑으로 엮이는 관계의 힘
한국인의 '정'은 계산 없는 사랑이며,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의 끈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이 '점'은 신앙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일상의 작은
섬김 속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김장철에 성도들이 함께 수육을 삶고 김치를
버무리며 정을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장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김치를 나누고, 반찬을 싸주고,
병문안을 가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정'이 깃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은 결국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내립니다.

A hand is shown holding a row of white dice. The dice are arranged to spell out the word 'SHARE' in black capital letters.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green and yellow gradient.

한국인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흥'으로 찬양하고, '한'으로 기도하며, '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전인격적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흠'을
나누고, '한'을 풀며, '정'을 쌓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한' 많은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와
치유를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의 '정' 많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독특한 정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